THE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Vol. 24. No. 2(2010) 13~21

무안 피서리구석기유적의 지질 · 고고학적 특성

이헌종[1)]*, 정철환[2)], 박성탄[3)]

[1)]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신저자, [2)]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Geoarchaeology of the Piseo-ri Paleolithic site, Muan

Heon-Jong Lee[1)]*, Chull-Hwan Chung[2)], Sung-Tan Park[3)]

[1)]Department of Archaeology, Mokpo National University, Chonnam 534-729
[2)]Institution for Marine and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Chonnam 534-729
[3)]Daehan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vestigation, Gwangju 506-300

요 약 : 무안 피서리유적은 최근 서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들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무안 피서리유적에 대한 층위 및 지질학적 분석결과는 토양쐐기의 특성이 토양의 굳기나 토양내부의 성분 함량 및 고지표면의 기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해주고 있다. 피서리유적에서 중기 구석기 늦은 단계 또는 후기 구석기 이른 단계의 석기들이 함께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들 석기가 산출되는 문화층이 최대 빙하 발달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활발한 침식과 재퇴적에 의해 여러 시기의 유물이 함께 재퇴적된 결과일 가능성을 지시해 주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구석기 유물의 분포와 토양쐐기와 같은 토양층의 특성은 고지표면의 기복 및 기후환경과 같은 자연환경적 조건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주요어 : 구석기, 토양쐐기, 재퇴적, 무안 피서리, 최극빙기, 중기구석기 늦은 단계, 후기구석기 이른 단계

Abstract : The Piseo-ri site in Muan provides significant data in investigation on the Paleolithic sites in the southwest coast of Korea. Stratigraphic and geological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haracteristic of soil wedge can vary in accordance with soil property and relief of paleo-surface. Considering that the cultural layer was deposited after the Last Glacial Maximum, co-occurrence of the late Middle to early Upper Paleolithic stone tools suggests a possibility of redeposition of different ages resulted from active eros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Paleolithic tools and the property of soil wedge could be controlled by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relief of paleo-surface and climate.

Key Words : Paleolithic, soil wedge, redeposition, Piseo-ri in Muan, Last Glacial Maximum, the late Middle to early Upper Paleolithic

1. 서 론

무안지역에 대한 구석기시대 연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시 · 발굴 및 지표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이헌종 · 송장선, 2007). 현재까지 이 일대에 대한 조사

* corresponding author: Heonjong Lee, Department of Archaeology, College of Humanities, Mokpo National University, 560 Muanro, Cheonggye-myeon, Muan-gun, Jeonnam, 534-729, Korea(e-mail: ruslee@mokpo.ac.kr, phone: +82-61-450-2155, +82-61-453-4840)

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 4개소, 시굴조사 4개소,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 12개소에 이른다(그림 3).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무안 피서리유적(그림 1, 2)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무안국제공항 건설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2000년 6월에서 10월까지 약 4개월에 걸친 시굴조사 과정에서 안산암제 양면석기와 격지, 소형 석영제 석기 한 점이 수습되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이헌종 외, 2002).

조사결과 무안 피서리유적은 후기구석기시대 이른 단계의 유적으로서 자갈돌석기 뿐만 아니라 규장암, 안산암 등의 양질의 석재를 활용한 격지석기나 양면석기가 함께 출토되었다.

또한 호남문화재연구원은 무안 피서리 조산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2004년 6월에 수행하였으며, 피서리 갱신세 토탄층에 대한 조사를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李暎澈 · 崔미노, 2007). 조산유적의 나이는 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토탄층 내에서 출토된 여러 면석기 1점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30-40ka의 어느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압해-운남 간 도로공사로 인하여 2005년 6월부터 약 2개월에 걸친 시굴조사와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진 2차 시 · 발굴조사 병행실시를 통해 무안 도원 · 농장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석영제 자갈돌과 맥암류의 여러면석기, 긁개, 격지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는 무안 피서리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대편년을 통해 볼 때 중기구석기 늦은 단계부터 후기구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도원유적의 여러면석기가 출토된 단면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한 절대연대 분석결과 15,080±80 ~ 3,230±70yr BP로 확인되었다(김경칠 외, 2007).

이와 같이 무안지역에서는 근래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조사를 통해 문화적 · 자연과학적 자료가 축적되어가고 있다. 또한 자료를 토대로 이 지역의 문화적 양상 및 제4기 환경 또는 고환경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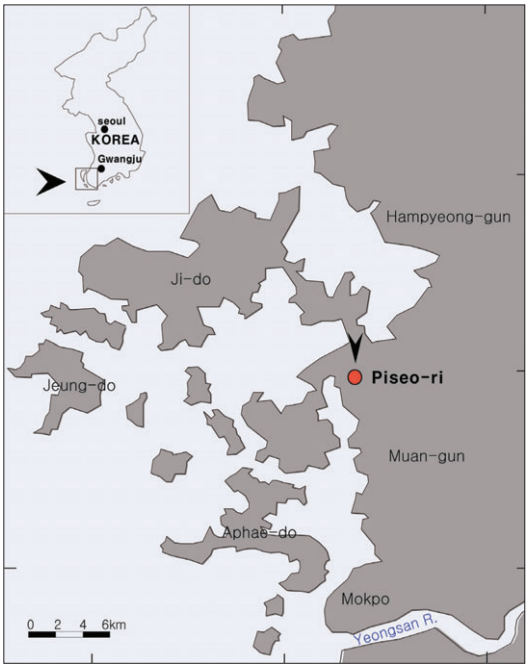

그림 1. 무안 피서리 위치도

그림 2. 무안 피서리유적 전경

그림 3. 무안지역 구석기유적 분포도

2. 무안 피서리유적의 지질학적 고찰

최근 구석기유적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4기 지질학 연구를 통한 유적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다(임현수 외, 2004).

이 유적에 대한 4기 지질 분석결과 지형과 지질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고토양과 퇴적층의 층위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피서리 지역의 여러 트렌치 단면에서 나타나는 토양층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고지표면의 기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서의 고지표면의 기복에 따라 토양층의 삭박과 퇴적이 일어나면서 복잡한 층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굴조사과정에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나라 구석기연구의 하나의 큰 과제로 논란이 되었던 토양쐐기는 이러한 미시 지형의 구조적 성격과 침식과정의 다양성에 따라 그 규모나 매수에 차이를 보인다는 접근이 가능해 졌다(Lee, 2003). 이러한 시각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자주 거론되었던 이동영가설을 기반으로 한 토양쐐기의 매 수를 기준으로 기후 환경에 따른 편년을 시도한 연구결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피서리 일대에서 나타나는 토양쐐기의 변화양상이 불과 수백m의 범위 안에서 극히 다른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피서리유적의 층위는 본 유적의 대표단면인 Tr.3-1 단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본 발굴단면의 제2a층 하부 혹은 제2b층 상부에

1) 제1a층 : 최상부 담황색 니사질 표토층(해발 약 12.3~12.5m)
2) 제1b층 : 갈색 사질토층(해발 약 12.0m~12.4m)
3) 제2a층 : 적갈색 사질토층(해발 약 11.4m~12.0m)
   - 2a층 하부에 문화층 형성
4) 제2b층 : 적갈색 니질토층(해발 약 11.2m~11.4m)
   - 수평 엽상조직/Bt Band
5) 제3층 : 담갈색 니질토층(해발 약 11.2m)
   - 하부로 갈수록 탈색대 발달
6) 제4층 : 조립질 모래층(해발 약 10.5m~10.7m)
   - 황색과 적색 니질토양 박층이 띠를 이루면서 포함. - 각력질 석영암편 다량 혼입.
   - 1~2cm 두께의 철, 망간수화물 농집대가 불규칙한 경계면을 이룸.
7) 제5층 : 적갈색 화강암 풍화층
   - 토양쐐기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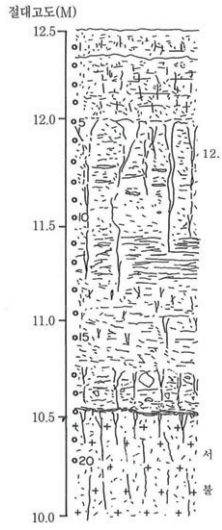

그림 4. Tr. 3-1(북벽)

서 주요 석기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토층의 후기 삭박작용으로 인하여 단면상으로 볼 때, 층위상으로 더 하부에 위치하는 퇴적물이 지표에 드러나서 삭박되어 재이동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서리유적의 기준 단면에서 채취한 시료를 중심으로 고토양과 퇴적물의 분석 결과 지층 내 퇴적물의 형성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5층은 한반도에 흔히 나타나는 적색토 혹은 적갈색 풍화토로서 이의 형성 시기는 최종 간빙기 혹은 이보다 이전 시기의 간빙기로 추정된다. 제4층은 기반암류의 해체산물이 퇴적되어 이루어진 각력내지 아원력의 사력 퇴적층으로 구성되며, 최하부에 망간 농집대와 토양쐐기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급작스런 건조 한랭한 기후 도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최종간빙기가 지나고 최종빙기 초기(약 7~5만년전)에 형성된 지층과 토양화 작용으로 해석된다. 제3층은 우리나라의 다른 구석기 유적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담황갈색 내지 적갈색 니사질 토층이며, 이들은 최종빙기 최성기 이전 해양산소안정동위원소단계(OIS) 3(약4~3만년전) 동안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지층이다. 제2b층 토양쐐기가 널리 발달하는 지층으로서 최종빙기 최성기인 약 1.5~2.0만년 전에 형성된 고토양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김주용 외, 2002).

요컨대 한반도 다른 구석기 유적에서 분포하는 고토양과 퇴적층에 대비하여 볼 때, 기반암 풍화대 위의 적색토층 위에 발달하는 제2층, 제3층, 제4층은 대부분 최종빙기(OIS-2,3,4기)에 형성된 지층으로 해석된다. 제2a층과 제1층은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 당시 해수면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주변 해역에는 많은 도서가 형성되었으며, 무안 피서리 일대에도 만입지형이 형성되었다. 만입지에는 비교적 높은 지하수위가 바다와 인접하여 있어 간석지와 염생습지가 많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무안 피서리유적의 고고지자기 연구결과(이윤수, 2002)에 따르면 시굴 Tr. 4-1단면(깊이 약 2m)로부터 채취된 64개의 퇴적물 정향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 대자율, NRM, ARM 특성들로부터 4개 지층(하부-상부, Mac1-4)이 구분되었으며, 낙뢰에 의한 심각한 재자화 성분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퇴적물 형성 당시의 지구자기장에 의해 기록된 1차 특성잔류자화는 15mT의 교류소자에 의해서 재자화 성분을 제거한 후에 검출되었으며, 퇴적시기가 73만년 전 이후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퇴적물 속의 낙뢰에 대한 기록은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주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3. 무안 피서리유적 일대의 구석기시대 문화상 및 편년

3.1. 무안 피서리유적 및 주변유적의 문화상

무안 피서리 유적은 최근 전라남도 서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들에 대한 연구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유적을 설명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풍부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지만 이 유적을 통해서 해안에 접해있는 무안 일대의 저평한 구릉에 분포하고 있는 기타 다른 유적들의 형성과정, 대표적인 석기들을 통한 문화상, 자연과학 분석 자료들을 통한 구석기시대의 기후환경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이헌종, 2004c).

무안 피서리구석기유적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물은 총 10점이다. A지점에서는 몸돌을 비롯하여 찍개, 여러면석기-망치, 홈날석기, 긁개 등이 확인되었으며, B지점에서는 규장암제 판석을 이용하여 제작된 몸돌 1점이 출토되었다(표 1).

석기의 출토유물의 구성은 홈날, 긁개, 잔손질된 격지 등의 비교적 소형 격지석기와 찍개 등의 몸돌석기, 몸돌, 망치 등으로서 소량의 유물이지만 일련의 석기제작과 관련한 과정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물의 석재는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석영맥암을 이용하였으며, 사암, 벽옥, 석영제 자갈돌, 규장암 등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석기들은 원거리에서 가져온 석영제 자갈돌과 근접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석영맥암과 규장암을 석재로 제작된 석기들이다. 확인된 유물은 출토위치, 퇴적층의 정황을 통해 제 위치에서 이동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도구들이 폐기된 이후 지속적인 퇴적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퇴적물과 함께 근거리 이동을 통해 현 위치에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시굴조사 과정에서 안산암제 석재

표 1. 무안피서리유적 유물출토 현황

일련번호	유 물 명	석 재	제 원(cm)			출토위치	비 고
			가로	세로	두께		
1	홈날석기	석영맥암	4.3	6.4	2.7	S5E4	A지점 출토유물
2	긁 개	석영맥암	3.1	7.7	2.5	S5E4	
3	긁 개	석영맥암	3.6	5.4	2.0	S5E4	
4	끝날긁개	석영맥암	3.3	3.5	1.8	S5E4	
5	잔손질된 격지	벽옥	0.6	0.8	0.1	S5E5	
6	망치-외면찍개	석영	6.8	7.2	4.2	S5E5	
7	양면찍개	석영맥암	7.1	9.3	5.4	S8E5	
8	망 치	사암	6.1	7.1	4.3	S9E8	
9	외면찍개	석영	10.3	11.4	8.3	S10E6	
10	몸 돌	규장암	11.4	6.6	4.4	S5E4	B지점 출토유물
11	찌르개	안산암	-	-	-	-	시굴조사 출토유물
12	격 지	안산암	-	-	-	-	시굴조사 출토유물

로 제작된 찌르개 및 격지가 출토되었는데, 이 석기들은 무안 피서리유적의 편년 및 문화상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그림 5, 6).

피서리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의 수량은 미비하지만 석기의 구성은 몇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 번째는 유적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석영맥암의 파편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석영맥암은 어떠한 경로인지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이 유적이 있는 위치에 이동되어져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이 맥암이 부수어지면서 북서쪽 구릉 사면 전면에 넓게 분포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석재로 제작된 석기가 소량 수습되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맥암류의 분포와 맥암제 석기가 확인되는 가운데 자갈돌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지역에는 암반 구성과 당시 자연환경으로 보아 유적 주변에서는 거의 자갈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석기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퇴적암 혹은 화산암 계통의 석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최성락 외, 1999). 이러한 석재의 부재는 당시 구석기시대인들이 무안 피서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일대에 지속적으로 점거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또 하나의 적극적인 증거는 이 유적의 암맥으로 형성된 규장암이 몸돌로 사용된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매우 거친 격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 암석을 이용하여 몸돌로 활용했다는 것은 맥암류의 파편을 일시적인 작업에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석재의 부재에서 온 문화 행위의 한 결과로 보여 진다.

무안 조산유적(이영철 · 최미노, 2007), 도원 · 농장유적(김경칠 외, 2007)에서는 각각 여러면석기 1점과 격지, 긁개, 몸돌, 찍개 등 18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가운데 무안 조산유적에서 출토된 여러면석기 1점은 토탄층(절대연대 3만년~4만년)이 확인(김정빈, 2007)된 지층의 하부에서 확인되었다는데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유적의 편년과 석기의 조합은 피서리 유적의 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은 무안 피서리유적을 포함한 피서리 일대의 지질학적 특성 뿐 아니라 구석기 문화의 다양성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불어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된 나주 당가 · 촌곡유적(이헌종 외, 2004), 나주 용호유적(이영철 · 최미노, 2004), 나주 상잉유적(이영철 · 최미노 2006), 함평 장년리 당하산유적(최성락 · 이헌종, 2001) 등의 구석기 문화와 편년의 문제를 서로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이헌종 외, 2006).

한편 무안 조산유적과 도원 · 농장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의 석재는 석영맥암, 석영, 규장암으로서 석영맥암의 활용적 측면이 두드러진다.

3.2. 무안 피서리유적 일대의 편년

그림 5. 발굴조사 출토유물 일괄

그림 6. 시굴조사 출토 주먹찌르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안 피서리유적을 비롯하여 주변에서 확인된 조산유적, 도원 · 농장유적에서는 석영맥암을 주된 석재로 활용하여 석기를 제작하였으며, 소수지만 석영제 자갈돌 및 기타 석재의 유입을 통하여 석기를 제작하였던 일련의 패턴이 확인된다. 특히 피서리 유적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산암제 찌르개와 격지는 가장 주목되는 석기이다. 안산암제 석재로 제작된 찌르개는 정교한 잔손질을 통해 양면 박리하여 제작되었다. 이 석기와 함께 발견된 격지들은 당시 구석기시대인들이 단독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위 즉 석기제작과 연관된 행위가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1cm 미만의 소형 격지상에 정교한 잔손질을 한 소형석기의 등장이다(이헌종, 2004a). 이러한 석기는 후기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에 가끔 보이는 석기이기도 하지만 시베리아 구석기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쉐스타코보 유적과 같이 후기구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이와 같은 미세석기들이 출토되는 경우도 있어 편년뿐 아니라 문화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석기들의 재질이나 녹의 형성과정에서 보여주는 양상은 이 석기가 재퇴적의 과정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기에는 신선한 능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산암제의 찌르개와 중형 격지, 소형 잔손질된 격지, 석영맥암으로 제작된 격지석기와 여러면석기, 심하게 마모된 찍개 등 여러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속성을 갖고 있는 다양성이 이 유적의 한 층에서 보여 지고 있다(그림 7). 쉽게 말해 영산강유역에서 보여 지는 중기구석기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인 자갈돌석기와 안산암제 양면석기 및 대형격지는 시기적인 편년 문제에 있어서 석기의 구성상 특이한 경우의 조합이다(이헌종, 2001). 이러한 석기구성이 우리나라의 중기구석기시대 늦은 단계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양상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이헌종, 2002) 있기는 하지만 석기의 마모도나 석기의 종류가 단일 시기가 아니라 왕성한 침식의 결과에 따른 여러 시기의 유물이 함께 재퇴적 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측면도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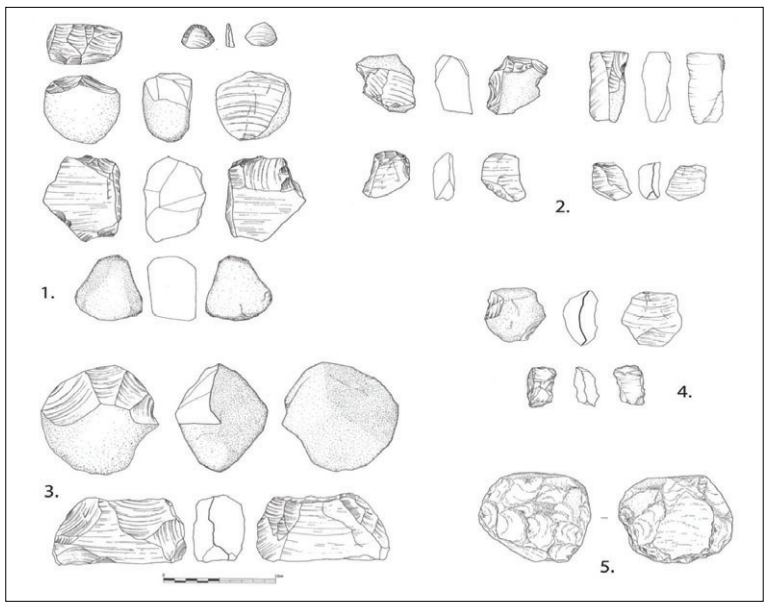

그림 7. 출토유물(1.~4. 무안 피서리유적 출토유물, 5. 무안 조산유적 출토유물)

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와 지질환경 변화에 따른 퇴적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가능성 때문에 편년을 내리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석영맥암과 동일한 지층 내에서 출토된 격지석기와 여러면석기-망치는 한 시점에 이루어진 유물군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유물상과 주변지역의 석재의 부재는 이 유적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 진다. 무안 피서리 유적 발굴단면의 기반암 풍화대위의 적색토층 상부에 발달하는 제2층, 제3층, 제4층은 대개 최종빙기(OIS-2,3,4기)에 형성된 지층으로 해석되며, 제1층은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제4기 환경변화 중에서도 최대 빙하 발달시기 이후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연대의 설정 가운데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는 문화층은 제2a층으로서 주요유물군은 하부 퇴적층의 삭박과정에서 현재 층에 유물이 재퇴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무안 피서리유적은 토양분석의 결과 및 유물의 제작기법을 통해 살펴볼 때 주요석기군은 재퇴적 가능성은 높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중기구석기시대 늦은 단계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양상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4. 맺음말

무안 피서리유적은 최근 전라남도 서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고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들에 대한 연구 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로 무안 피서리유적 일대에서 보여 지는 퇴적층위 및 지질학적 분석결과는 최근 가시적인 논의 결과가 도출된 토양쐐기에 대한 논란을 재검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피서리일대의 층위 상에 나타난 미시적인 암반층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 퇴적 양상과 토양쐐기가 불과 500여m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는 토양쐐기의 규모나 길이가 토양의 굳기나 토양내부의 성분 함량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설과 함께 최근 전라남도 서남해안 일대의 지층에 대한 조사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서리유적에서 나타난 구석기시대 문화상에 대한 것이다. 이 유적에서 보여 지는 유물의 구성상의 특징은 맥암류로 제작된 석기류와 함께 여러면석기와 같은 전형적인 자갈돌석기들을 포함한 소형석기, 안산암제 양면석기 및 중형 격지가 동일한 지층 내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석기의 구성 가운데 더욱 주목되는 것은 1cm 미만의 소형 격지상에 정교한 잔손질을 한 소형석기의 등장이다. 재퇴적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유물들은 중기구석기 늦은 단계 또는 후기구석기 이른 단계의 석기문화와의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 주목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피서리유적에서 주목할 점은 토양쐐기의 다양성과 지화학분석을 통한 기후환경 복원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석기구성이 실제로 어떤 시기의 석기문화와 연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무안 피서리유적에서 실시된 여러 가지 자연과학 분석과 석기 연구를 통해 무안 피서리 일대의 지질 및 구석시대 문화상에 대한 자료의 축적으로 이 지역의 거시적인 측면의 환경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경칠, 정 일, 한미진, 2007, 무안 도원 · 농장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정빈, 2007, 무안 조산유적 발굴지 고토양 분석 및 연대측정 결과, 務安 造山遺蹟,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65-282.

김주용, 양동윤, 고상모, 남욱현, 이윤수, 2002, 무안 피서리 구석기 유적의 제4기 지질조사 및 자연과학 분석 ,무안 피서리 구석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서울지방항공청, 79-136.

이영철, 최미노, 2004, 羅州 龍虎 舊石器遺蹟, 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영철, 최미노, 2006, 羅州 上仍遺蹟, 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영철, 최미노, 2007, 무안 조산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윤수, 2002, 무안 피서리 유적지의 고고지자기 연구, 무안 피서리 구석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서울지방항공청, 137-151.

이헌종, 2001, 우리나라 자갈돌석기전통의 문화적 성격, 동북아시아의 자갈돌석기문화, 제2차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발표집, 25-26.

이헌종, 2002, 호남지역 후기구석기시대 석기문화의 주요 특징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16, 14-15.

이헌종, 노선호, 호용수, 2002, 무안 피서리 구석기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헌종, 2004a,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편년과 석기의 기술형태적 특성의 상관성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44, 8-13.

이헌종, 2004c,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의 구석기시대 유적 분포와 문화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구석기학보 9, 3-5.

이헌종, 노선호, 이혜연, 2004, 나주 당가 · 촌곡리 구석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이헌종, 김정빈, 정철환, 임현수, 이혜연, 2006, 영산강유역의 구석기 고고학과 4기 지질학, 학연문화사, 서울, 165-203.

이헌종, 송장선, 2007, 전라남도 서해안일대의 구석기유적 분포와 제 특성, 丹陽과 그 이웃의 先史文化, 262-267.

임현수, 김정빈, 이헌종, 2004, 장동리 용동지역의 제4기 고토양 연구, 영산강유역 중류의 구석기 유적분포와 고환경복원(목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고고환경지질연구회).

최성락, 이헌종, 박철원, 1999, 무안공항 예정지역내 고고유적, 무안공항 예정지역내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이헌종, 2001, 함평 장년리 당하산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Lee, H. J., 2003, The Middle to Upper Paleolithic transition and the tradition of flake tool manufactur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rchaeology, ethnology & anthropology in Eurasia 1(13), RAS&SB Press.

투 고 일 10. 11. 27
심 사 일 10. 11. 29
심사완료일 10. 12. 20